몇 개 몇 개 남았어요?

시험이요?

예.

지금, 두 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개요?

3개

세 개? 막 어렵고 그런 그런 과- 그런, 강좌였나요?

강의가 어렵냐고요?

예, 그러니까 남은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

아 근데 두 개는 이미 준비를 끝냈는데

예.

아, 네 개네요. 총 네 개.

총 4개. 아유 세상에. 뭐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하죠.

아, 네.

지금 녹음 중이고,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이제 끝나가죠?

네.

그러면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없을까요?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게을러졌다는 걸 느끼고, 그래도 뭔가 배우지 않았을까요? 흫흫

지식은 는것 같아요.

지식만 늘었지. 뭐, 크게 바뀐 건 없다.

네.

오히려 더 게을러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캡스톤 강좌가 다른 강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유일하게 대면 수업을 한번 진행했었다는 점?

아하, 유일하게. 그러면 이 강좌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아두이노에 대한 코딩과 그, 회로 설계 방법을 배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강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첫인상이 들었나요?

제가. 과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걱정하셨죠?

사실 아두이노에 대해서는

예.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예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워 보여서. 모르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나가는데 그 인상이 바뀌었나요. 어렵다는 인상이?

어느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강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접근 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은,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면 왜 뭐,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나 주제를 찾는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어떻게 실제로 만들었나 그런 거요.

음, 아이디어 접근 방법은 제가 일단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필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는 뭐였죠?

주제는, 나의 건강 지킴이라 해가지고

나의 건강 지킴이요?

네

아하, 예 그래서요?

문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제가 만약 제가 지정한 횟수보다 밖을 나가게 된다면

아.

이렇게 경고를 알림으로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예. 그거는 본인이 나가는 문 앞에서 깔짝깔짝대면 카운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무의미하죠.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건 어려웠나요? 직접 만드는 거 말고?

설계는 어렵지 않았어요.

설계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럼 만드는 건 어땠나요?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본인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만족하나요?

사실 저희가 받은 아두이노 키트에는 좀, 그, 아두이노 키트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예.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예.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어, 본인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성취감이 있겠네요. 어, 그러면 10점 만점으로 본인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몇 점을 주고 싶어요?

저는 구 점 정도 주고 싶어요.

9점이요? 그 나머지 1점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재료 부족으로 인한 완성도가 떨어진다? 정도가.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일 점이? 본인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주제를 바꾸고 싶었던 적은 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갔네요? 어, 그러면 이 강좌의 교수라면 뭘 바꾸고 싶나요?

교수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좋았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 아, 아두이노를 쓰셨죠?

네.

써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예.

사실 하드웨어 쪽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반반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만지작만지작거리기 좋은데 하드웨어는 만지작만지작거리기 싫다. 그래서. 그런데 아두이노는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반반? 하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2개로. 라즈베리 파이랑 아두이노랑 써서 프로젝트 2개를 한 학기에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강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과제도 준비하고 해야 돼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된다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프로젝트 자체를 조금쉽게 만들어서. 간단한 걸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내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데 뭐, 프로젝트 자체에 기대하는 기댓값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러면은 아두이노는 배우기는 어려웠나요?

어, 사실 아두이노는 워낙 유명해서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코딩을 해야 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예.되게

참고서처럼 찾아보기 쉬웠어요. 그래서, 배우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직접 사용하는 건 어려웠나요?

아니요? 배우고 있다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 배우는 거랑은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가 본인에게 쉽게 다가왔나요? 그러니까 유저친화적이라고. 정확하게는 워딩이 이런데. 본인이 사용할-

네, 쉽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나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뭐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 강의에서요?

예예.

이 강의에서 프로그래밍을 해 봤어요?

아두이노 코딩을 했죠?

그러면은, 코딩에 문제는 있었나요?

어 문제가.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예.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으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약간, 캠프처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산 오를 때, 산 오를 때 베이스 캠프처럼

예, 베이스 캠프 처럼.

그런 것 처럼요?

네.

그래서 어디. 어디. 기능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 기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완성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바꿔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체계적으로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베이스캠프라고 하셨는데 그게 백업과 비슷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테스트. 0.1버전 해서 진행하다가 안 되면 0.2버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뇨. 그러니까 그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면 여러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젝트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로봇, 부품 조립하듯이.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는 했나요? 배웠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아두이노는 코딩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랑 다른가요?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아, 이 강의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분명히 교수님이 동영상을 제공은 했는데, 거기서는 많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다 직접 찾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배웠다고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동영상이 그렇게 도움되지 않았나요. 본인에게도?

사실 동영상보다 직접 가르쳐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그 수학 계산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강의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네, 해봤습니다.

그 뭐, 어떤 경우에 수학 계산이 필요하던가요.

제가 초음파 센서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예.

근데 제가 분단위로 알림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세컨드인데

예.

그걸 분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

곱하기를 해줬다거나.

곱하기를 해 준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세컨드는 1초에 몇 마이크로세컨드인가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궁금해져서. 갑자기 그러면 본인이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생각하나요?

파이썬에 한해서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썬은 쉽고 나머지는- 혹시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 언어 같은거는 아직?

아직 안 배워봤어요.

아직 안 배워보셨어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파이썬이 제일 쉬워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트흐흫

어, 그래서,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럴까요?

아직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집중적으로 코딩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오.

이것저것 찔러보고 다니는 그런 거라서.

예.

프로그래밍 쪽에, 그, 어, 능력을 보일지?

아, 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나는 아직 너무. 그러니까 완전하게 시작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초입이니까 내가 아직 어떻게, 잘하게 될지 모르- 알- 그런거를 아직 모르겠다? 판단 보류네요?

사실, 사실 대학교 오면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이곳에 저희 학과 지금 미래기술학부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미래기술학부가 아니라 영어국문학과에 온 게 아닌지

아하하! 그, 학교에서 그 영어 수업, 영어로 수업한다고 얘기 안 했나요. 혹시?

아니 그, 수업들이 여기다 영어 관련된 수업이라서. 프로그래밍 관련이 아니라

아, 지금 교양 수업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아, 그거 2학년 되면은 하나도 안 해요. 그거 걱정, 그거는 걱정마세요.

아, 다행이네요

그거는. 물론 본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왜 교양 언어- 영어도 잘 나가는 반이 있고

약간 조금 부족한 반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RIEP였나?

아 네네.

그,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잘해가지고 운 좋게 나온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영어 낙제점 받은 애들은 어떻게 되-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학년 때는 영어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장래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요?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빅데이터, 데이터 아날리틱스. 그거군요. 뭐,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꿔온 직업이라서.

예 그 계기는?

이유라고- 어 네, 그 계기는 어떤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 어떤 기업에서 쇼핑몰에서

예.

청소년 아이에게 출산 관련된 물품을

예.

선보이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이걸 부모님,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보고 기업에 따진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업에 이 기업에서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 아이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예예예.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물품을 그,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해가지고,

예.

그 쪽으로 길을 가고싶어졌습니다

아 그, 괜찮네요. 그, 그냥 온 사람도 있고 한데, 그 아무래도 목표가 있으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 프로젝트였죠?

네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그룹으로 해보고 싶진 않나요?

그러고 나면. 솔직히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이 질이 올라가는 거니까.

질이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개인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질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룹의 몇 명 있으면 좋겠나요?

두 명에서 4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2명에서 4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계상, 3명은 무조건 들어가요. 두세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3명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3명은 꼭 들어가요. 어, 개인 프로젝트였던 건 아는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한 적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왜?

아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랑 했고, 왜, 왜 하셨나요? 이름은 말 안 하셔도 돼요.

하기는 저희 형과 했고요,

아 예.

이유는, 중간에 생긴 오류를, 그, 찾아달라고 피드백 받고자 했습니다.

형님이 뭐, 그 쪽 관련 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 아 그러면 형님한테서 받은 영향도 꽤 있겠네요. 본인에게/

네 맞습니다.

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논해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다가왔나요?

제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두이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문제 자체가 쉬워졌나 어려워졌나를 물어보는 거라서, 그 답이 맞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질문이, 의논해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다가왔냐는 거였는데 문제를 알았다고 하시니까.

쉬워졌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였나요?

아무래도 제가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 회로 설계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회로 설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셨나요?

인터넷을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안 되면, 형님한테 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다시 해야 되네? 라는 생각에 좀 절망하기도 하고 그랬죠.

어, 다시 하는 거는. 그 부분만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새로?

그러니까 오류난 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하는데 오류를 잡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해서.

어,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네, 결과값이 새 마음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완성을 해서. 예.

반성이라는 게 결국 피드백이고 본인에게, 그러니까 결과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아뇨,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완성을 하셨어요? 한시름 덜었네요?

네.

그러면 그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결국 그러니까 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풀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행 도중에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진행 계속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완성하기 전에는 계속 들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결하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기말 과제니까.

네.

계속 붙잡고 했죠.

음, 그러니까 중요- 그 과제의 중요성을 좀 더 집중해서 그래서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막상 주셨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예.

그 처음을 제외하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막했을 때 제외하고는

예.

계속 도전하면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했었다면, 다른 그룹원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쉽게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공유가 잘 되었을 것 같냐 이 말씀이시죠?

예예예.

저는 랜덤으로 팀원이 정해졌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조금 죽이 맞는 친구가 있어야지 얘기를 나눴을 거고. 랜덤으로 하면 데면데면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 가끔 가다 보면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그런 애들과 팀이 되면 어, 좀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고

예.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블 체크하는 거거든요.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면 그, 본인 생각에 그룹으로 일을 하면 프로젝트 관련 문제에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쪽 방면에서는 솔직히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알겠습니다 본인생각에,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50% 보단 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50%를, 기준일까요.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다?

예.

어, 살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한 예시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아,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컴퓨터를 자주 고치곤 했습니다.

아.

학교에서 있는?

그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고쳤다는 뜻인가요? 하드웨어 쪽으로 고쳤다는 뜻인가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손재주 있으신 거 아닌가?

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를 뭐, 하드웨어는 진짜 죽상이거든요?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하드웨어는 손재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조금 거짓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뭐 거짓말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 판단이니까. 허, 그러면 음. 본인 나중에- 본인 생각에.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이 질문을 왜 넣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제 해결 능력이 그냥 살면서 직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가 다 닥치면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왜 이거를 넣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도전하는 건 좋아해요?

도전이라 하시면 어떤 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제너럴한 도전이요.

그러니까 승산이 보이지 않는 거에다가 그냥 갖다 박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고 없고를 그것도 따라 갈리는군요. 본인 그거로는?

네, 저는, 저는. 가능성이 안 보이면 안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을 보고 가늠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전이라는 게 본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개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도전 자체가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도전을 하시면서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 성공한 경험도 있을 텐데 그 둘 다를 따지고 보면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도전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3의 답변이네요. 으흐흐흫! 어우. 도전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도전은. 뭐, 대학교 원서지원. 이런 거라서.

그게 도전- 그게 도전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선택이 더 맞지 않나요?

그건 붙었을 때 얘기 아닌가요?

어, 제가 뭐 서울대에다 원서를 넣는다고 해도 그것도 선택이 아닐까요? 도전이랑? 선택이랑?

저는 솔직히 도전이라고 봐요.

원서 지원 자체가?

네. 사실상, 그러니까 원서 지원 중에서도 상향지원을 저는 도전이라고 봐요.

아, 상향 지원을?

예.

그러면 약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 하여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도전하지 않는 게. 개발에 도움이 된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시면은?

뭐,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아두이노를 회로 설계하는 거랑 코딩하는 거 자체만 알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10점 만점으로. 아까는 프로젝트였지만. 이번에는 본인,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이 강좌에서 본인 성취의 정도를 매기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의 성취에 대한 거죠?

예예. 본인 성공.

어, 저는…… 6점 아니면 7점을 주고 싶어요.

어, 아까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9점이었는데 이번에는 6점, 7점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점은 뭘까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았던 점? 같습니다.

아, 아까랑 이유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해서 저는 만족하지 못 한다- 못 했다고 생각해요. 성취감을 느껴지는 못했어요.

더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를 계획에 맞춰서 따라갔나요?

네 맞습니다.

잘 따라가셨네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아뇨.

오, 그러면 무엇이 창의적인 걸 방해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사람의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단지 그쪽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본인 성정 자체가? 성격 자체가?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면 몽상하는 건 좋아하나요? 뭐, 아까랑 비슷한 궤인데

몽상이요?

예.

그러니까 상상과 비슷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상상을 조금 약간 조금 더 넘는?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을 때 말고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어, 그러면 딱히 좋아하지는 않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상이나 몽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그거는. 창의적에 관한 것 때문에,

그렇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창의력을 기르는 그런 행동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는 재능이라고 하셨는데 기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재능을 계속 단련시키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에다 무엇을 곱해도 영이라서. 그런 뜻 인가요.?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생겼습니까?

제가 다른 일이 없지 않는 한? 저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많이 바뀌었나요? 그 강의 듣기 전과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아 물을 의향이 더 생겼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생겼습니까. 더?

네 있습니다.

아, 그, 왜 더 생겼을까요?

혼자의 의견보다는

예.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수용해서 하는 게 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평소 본인의 생각이지 않았나요?

전에는 저 혼자만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 것 같습니까?

네, 조금이나마. 조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개발됐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까?

네.

어우, 아까는, 아까는 재능이라서 뭐, 개발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창의적이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어, 개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허허. 그러면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 수업이 잠깐 한 번 있었죠?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면 수업.

그러면 일단은 온라인 수업 자체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편하게 생각해요.네. 편하다고 생각해요.

편하다? 그러면-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그게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싸돌아다니고 했었는데, 동캠 서캠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런데 확실히 온라인으로 하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흐흐.

그러면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느끼시고 또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여쭤보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더 물어보셔도 합니다. 정확한 단어라든가

아니요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예.

일단 저는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남으니까?

아무래도 잠을 더 잘 수 있다거나?

예

해서, 집중력이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혼합수업 때는 오프라인에 참석하셨나요 혹시?

네 했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나요?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나요? 그러면 뭐, 그-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아무래도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 무엇이 가장 크게 느껴졌나요?

동기가 바로 옆에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저는 좋았습니다.

음, 그럼 혼합 수업이라는 이 포맷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그날 가서, 그 교실에서도 혼합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줌도

줌으로 연결해서, 온라인 학생들이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혼합 수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그런 포맷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요즘 같은 시대에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게. 코로나를 상정해두고?

예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다 끝났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딱히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름이 긴가민가 한데 같이 그 고등학교 갔던 그 친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거 참. 최 씨인줄 알았어요, 최씨.

아, 이미 하지 않았어요?

뭘요?

그, 최 씨.

최우진이가 있어요?

아뇨, 아아아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 보기 좋네요. 지금은 인터뷰라서 존댓말을 하는 겁니다. 하하.

내가 그때도 존댓말을 했나?

아뇨!

한번 보고 말아가지고.

안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 뭐 하여튼간에 그, 시험 남은 것도 잘되고

네네.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썩, 에유, 거,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